



Market Index / 6일

코스피지수 ▼ 2155.07 -21.39

코스닥지수 ▼ 655.31 -14.62

유가(WTI, 달러) ▲ 63.05 +1.87

감골 평균경락가(5kg, 원) ▲ 6,800 +300

환율(원) 1USD 1190.47 100¥ 1100.81

팔매 1149.53 1062.95

1EUR 1332.35 1CNV 176.17

팔매 1280.37 159.41

가을가뭄·태풍 이겨낸 월동채소 가격 좋다

양배추·당근·무·쪽파 등 도매가격 작년대비 급등 노지감귤도 최근 오름세



6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이례적인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 등의 피해로 파종을 뒤늦이했던 제주산 양배추와 당근, 월동무, 쪽파 등이 본격 출하되며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

6일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서울 농수산물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양배추(8kg 기준)의 도매가격은 1만3380원으로 전월평균 1만120원보다 32.1% 올랐다.

당근(20kg 기준) 도매가격도 이날 4만2650원에 거래되며 고공행진 중이다. 전년동월평균 2만4460원에 비해 도매가격은 74.4% 급증했다.

양배추와 당근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적지만 선전하고 있다. 3만8180원보다 전일인 지난 3일 4만5930원보다 내렸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610원에 견줘서는 1.5% 성장했다.

감귤(10kg 기준) 도매가격도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탔다. 가격은 1만164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1만4920원보다는 22.0%

하락했고, 전년평균 2만1840원에 비해서도 낮다. 하지만 전일의 9180원에 대비하면 26.7%, 지난해 평균 가격 9070원보다도 28.3%가량 각각 회복했다. 반면 하우스감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노지감귤도 산지폐가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올해 제주 감귤농가의 시름은 어느 해보다 깊다.

최근 출하 중인 채소류의 경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의 소매 가격도 괜찮다. 양배추는 개당 2480원~4850원, 무는 개당 2280원~4000원에 각각 판매 중이다. 당근도 100g에 335원~458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쪽파는 1단에 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백묵타기자 haru@ihalla.com

■ 제주신용보증재단 '2020년 달라지는 사업' 골목상권·창업기업 보증공급 확대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도 신규 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신용보증, 소상공인 종합지원, 고객지원 등 분야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재단은 6일 지속적인 보증공급과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을 발표했다.

재단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2680억원을 올해 보증공급할 예정이다. 또 제주 동경 경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도내 경제 부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골목상권과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헤드룸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규모를 기존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에서 지식기반 온라인 중심의 사업으로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영세

사업자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또 소상공인·지역기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창업과 경영 안정화·재기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경영아카데미, 현장·종합컨설팅, 경영포럼, 사업정리 지원 사업 등이 지속·확대된다.

이에 더해 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해 >경영안정화도모 >재기 발판 마련 >삼의 질 증진 및 재충전 도모 >마케팅 활동 활성화 제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5개의 신규 사업이 실시된다.

재단은 아울러 사회적약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 1% 가량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최저 연 1%대의 저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김경성기자

제주조달청 사업 실적 첫 6000억대 진입 지난해 6250억 집행... 1978년 개청 이래 역대 최고

제주지방조달청의 지난해 조달사업 실적은 1978년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대를 돌파했다.

6일 제주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한 조달사업 실적은 6250억원으로, 2018년 5426억원에 견줘 15.2%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는 1978년 개청 당시 26억원에 불과했던 조달사업 규모가 40여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2017년 첫 5000억원대에 진입 후 2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앞서 도내 조달사업 실적 추이는 1990년 345억원, 1999년 1344억원, 2005년 2247억원, 2010년 3131억원, 2011년 4256억원, 2017년 5723억원 등이다.

조달사업 부문별로는 내자구매(물품·서비스)가 5313억원으로 전년도의 4915억원보다 8.1% 증가했다. 벤

처·창업기업의 초기판로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상품 구매 실적도 지난해 10억원으로 전년도 실적인 3억원 대비, 3.3배 늘었다.

시설공사 집행실적은 937억원으로 2018년도의 511억원에 견줘 83.4% 급증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공사(178억원), 제주지방경찰청(170억원), 제주국가생약자원관 리센터(142억원) 등의 청사 신축을 비롯해 초·중학교 증축공사(195억원) 등의 신규 발주가 주요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전체 조달사업 실적 중 제주 지역 조달업체 지원실적은 2592억원으로 전년도의 2311억원에 비해 집행률은 112.2%에 이른다.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백묵타기자

회복 기미 안보이는 제주기업경기

지난해 12월 업황BSI 60으로 3개월째 제자리 1월도 전국보다 16p ↓

제주지역 기업경기가 냉랭한 가운데 연초에도 회복 기미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6일 발표한 '2019년 12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도내 업황BSI(100 기준)는 60으로 전월과 동일, 석달째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업황BSI(54)는 하락했지만 비제조업 업황BSI(61)는 1p 오르며 반등에 실패했다.

제주지역의 1월 업황전망BSI도 60으로 전월과 다르지 않다. 제조업

업황전망BSI(60)는 4p 올랐지만 비제조업 업황전망BSI(60)는 전월과 동일해 연초 제주경제의 회복세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사대상 업체들의 경영에로서향은 내수부진(22.7%), 인력난·인건비 상승(19.1%), 경쟁심화(12.7%) 등의 순으로 나오면서 힘든 겨울을 나고 있다.

한편 12월중 전국의 업황BSI는 76으로 제주보다는 16p 높아 비교적 상황이 낫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4)과 비제조업(78)이 제주에 견줘 10p, 17p 각각 높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300개(제조업 41, 비제조업 259)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51개(제조업 34, 비제조업 217) 업체가 응답했다. 백묵타기자

이스타항공 12일까지 대만노선 특별 프로모션

이스타항공은 오는 12일까지 5개 대만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제주~타이베이(타오위안) 8만 7800원 ▶ 부산~타오위안 ▶ 청주~타이베이(타오위안) 7만 9000원 ▶ 부산~타이베이(타오위안) 6만 4000원부터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프로모션에서 출도착 공항을 달리 지정해 여행하는 '다구간 노선'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베نت 기간 화환 또는 가오슝 노선을 포함해 다구간 노선을 예약할 경우 특가를 제외한 항공운임(할인운임·정상운임)에서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 오는 9~15일 '짬 항공권' 예매 진행

제주항공은 9일부터 15일까지 초특가 항공권 정기 할인행사인 '짬 항공권' 예매를 진행한다

이번 짬 항공권의 탑승기간은 국내선의 경우 오는 3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제선의 경우 오는 3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1인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는 국내선의 경우 >김포·부산·청주·대구·광주-제주, 김포·부산 1만2300원부터, 국제선의 경우 >일본노선 3만 5700원 >중화권노선 3만8900원 >동남아노선 5만2400원 >대양주노선 6만500원 >러시아노선 6만500원부터다.

제주항공은 이번 프로모션에서 자주 탑승하는 회원에게 우선적인 예매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정 소식
일반구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기술향상 및 생활에 필요한 교양관련 특강 운영 안내
문의: 일자리과, 홀대내일센터 ☎710-4480

제주시정 소식
2020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
연납대상: 2020년도분 자동차세
신청 납부기간: 2020. 1. 2 (목) ~ 1. 31. (목)

주간농업농촌소식
제주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의 참여 바랍니다.
-일 정 안 내-

감골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평천혜향 3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